

《主 題》

1994年度 情報通信政策 方向

박 성 득

(재신부 통신정책실장)

■ 차 례 ■

I. 情報通信産業의 與件과 課題
II. '94年度 情報通信 政策基調

III. 主要業務計劃
IV. 맺음말

I. 情報通信産業의 與件과 課題

오늘날의 世界는 자국의 經濟的 實利追求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各國간의 다툼으로 인해 國境없는 戰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93년말 UR協商 妥結등에 따라 世界經濟秩序가 改編되고 있는 과정에서 國際化·開放化가 가속되고 있으며,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의 발효와 유럽經濟地域(EFTA) 체제의 출범등 각동하는 世界경제의 움직임 속에서 地域間 또는 國家間的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世界の 모든 나라가 經濟社會의 모든 분야에서 艱難한 경쟁을 요구하는 無限競爭時代에 처하여 나라마다 國家競爭力 強化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래 핵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情報通信分野에 集中的인 投資를 아끼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對應이 시급한 실정이다.

美國의 경우, 情報流通을 미국경제의 競爭力 向上의 核心要素로 인식하여 大統領 直屬의 咨문기구를 두고 國家情報基盤構造(NII)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日本은 「新社會資本」건설의 기치하에 전국적인 광케이블망 구축과 계획을 강구중이며, EC도 각 회원국을 연결하여 「高速行政通信網」 구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신정부출범이후 경제 각부문에서 行政規制 緩和등 과감한 制度改革을 단행하여 民間의 創意와 自律을 일걸음으로 하는 新경제 秩序確立에 주력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成長活力을 집화시키기 위한 國際化·開放化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電氣通信部門에서는 그동안 加入電話 2,000만 회선들과, 교환기 및 반도체분야에서의 國產技術開發 성공등으로 通信통신분야는 어느정도 成果를 거두었으나 無線 및 데이터 통신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또, 전반적인 基礎技術이 부족하여 첨단기술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國際競爭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技術力 確保를 위하여 通信事業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基金을 조성하는등 연구개발 환경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競爭相對國에 비해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며 보다 과감하고 국제화된 연구개발 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II. '92年度 情報通信 政策基調

올해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통신산업의 民營化

와 競爭導入을 확대하여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최대한 유입하여 行政規制를 緩和하여 정부의 간여를 축소하고 민간 자원에 의한 경쟁을 촉진한 계획이다.

또한 競爭力 있는 분야의 核心技術 開發에 주력하여 國家戰略차원에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產業의 競爭力을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 投資規模를 擴大하고 民間기업의 연구개발 協力體制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사회의 情報化를 촉진하여 국가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地域 및 產業 情報化를 집중지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어촌 정보화를 적극 지원하며, 國家基幹電算網事業의 차질없는 추진과 정보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통하여 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情報通信 下部構造를 고도화하여 성장 잠재력 발현을 극대화 하도록 미래 정보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인 超高速情報通信網 구축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이동전화등의 품질 향상과 선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발을 통해 無線通信產業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Ⅲ. 主要業務計劃

1. 情報通信產業의 國際化

올해는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화의 원인으로 삼고 通信事業의 民營化와 競爭을 擴大하여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산업을 開放體制로 전환하여 國際化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通信事業의 競爭體制를 強化하기 위해 通信事業의 民營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작년에 이어 한국통신 주식을 추가로 매각하고 한국이동통신주식을 한국통신 보유지분이 20%가 되도록 매각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민간에 이관하여 한국PC통신(주)와 (주)진화번호부 등의 주식매각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제2이동통신사업의 新規許可를 '94년 상반기 중 시행하고 附加通信事業을 완전 개방하며 周波數 共用通信과 무선데이터통신등 새로운 사업작업 허가하여 통신사업의 경쟁을 확대하는 한편, 個人携帶通信, 低軌衛星事業등 새로운 기술에 의한 사업을 수용하고 통신사업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엄격한 事業者 區分方式을 검토·조정하여 電話, 專用回線등 기본통신분야에도 집진적으로 경쟁도입을 추진하고 통신사업에의 新規進入條件을 완화하는 등 통신사업의 전면적 構造改編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情報通信事業의 對外競爭力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교환기(TDX) 구매제도를 性能과 價格에 의한 競爭體制로 전환하여 성능향상을 유도하고 수출유망 情報通信器機의 품질을 고도화하는 한편 무선기기용 반도체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통신기기 核心部品의 國內開發을 촉진하여 通信器機產業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휴대전화등 수요가 급증하는 無線通信技術의 自立化를 추진하고 새로운 무선통신방식의 週期導入과 周波數 豫告制의 實施를 통하여 전자기기의 개발과 內需市場의 확대를 촉진하는등 電波產業의 완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國家基幹電算網의 구축과 공공기관의 情報化를 통해 대규모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의 터전을 제공하고 情報通信振興基金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國產컴퓨터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컴퓨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며 公共 데이터베이스(DB)의 개발 보급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은행의 설치 및 品質認證制度의 실시로 소프트웨어 流通과 活用을 촉진시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를 情報通信產業의 海外進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주요 수출대상국과 政府次元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事業者의 통신망 설계지원과 기술훈련 제공등으로 전자교환기(TDX) 등 정보통신기기의 輸出與件을 조성하며 베트남과 필리핀의 通信網 現代化事業과 케루 국영통신회사 民營化 推進事業등 개도국 통신사업에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신사업에서도 UR協商 타결로 基本通信市場의 開放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예상됨에 따라 協商對應力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업 國際化 推進團을 구성 운영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유기적인 協力體制를 構築할 방침이다.

또한 '94. 4월이후의 기본통신서비스 多者間協商에 대비하여 先進國의 基本通信 開放戰略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에 대처하고 開途國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선진국과 通信器機 交易基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미국, 호주등과 통신기기 型式 承認 相互認定을 추진하고 EC등과 相互主義에 의한 통신기기 조단 협의를 추진해 갈 계획이다.

2. 國家社會의 情報化 促進

情報化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너

불어 살 사는 사회"를 실현해 나갈 뿐 아니라 국가사 회 전반의 效率性을 제고하여 産業競爭力을 강화토 록 할 계획이다.

우선 정보유통구조가 취약한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농수산물의 작황,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產地와 賣場간 直來 지원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며 농어촌작토소와 영농·축산단지간 遠 隔技術教育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등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營農情報의 제공을 확대하며 農漁村 生活環境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민후계자에게 정보통신단말기를 無償으로 제공하고 컴퓨터 無料教育을 확대하며 원격교육 및 원격진료등 示範事業을 추진하여 농어촌정보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道단위로 관공이나 산업정보 등 지역특성에 맞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주요토지에 地域情 報通信센터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는등 지역정보화사 업을 지속적으로 郵遞局의 綜合奉任窓口 기능을 확대하여 농수산, 금융등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民願書類 發給을 代行토록 협의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도 적극 추진해 갈 계획이다.

이외에 産業情報化를 지원하기 위해 主品の 수문 및 발송을 위한 流通情報網과 物資의 효율적 운송을 위한 運送情報網의 구축을 지원하며 中小企業의 정보화 시범사업등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국가기간전선망 2단계사업(92~96) 지원하여 醫療·福祉 및 氣象情報管理시스템을 설치하고, 住民 및 土地情報 등의 공동활용으로 行政能率을 향상토록 하고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次世代 電算網 구축명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전선망의 監理基盤도 제정한 예정이다.

또한 情報通信端末機 1,000만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情報利用活性化를 위한 공공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확대하고 情報化 促進을 위해 지방대학 및 학술단체에 研究費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민정부적으로 情報文化의 날(6월) 행사도 개최하여 정보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3. 情報通信 技術開發 強化

첨단기술의 조기자립을 이루기 위해 對外競爭力 있는 核心技術을 戰略的으로 육성개발하며 技術開發 投資를 확대하고 研究開發 支援體制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通信網技術을 高速化하기 위한 핵심기술인 비동기 交換技術(ATM)을 '97년까지 개발하고 10Gbps

급 光전송기술과 원격진료등 다양한 서비스기술의 개발을 추진하며 컴퓨터기술의 자립을 위해 國產中 型컴퓨터의 상용화와 高速並列 컴퓨터기술을 개발하고 추진실기의 分散運用이 가능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과 한글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情報管理 기술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無線通信技術의 개발을 촉진해적 CDMA방식의 移動電話技術을 '95년까지 개발완료하고 個携帶通信網 기술의 개발에 착수하며 디지털 衛星放送의 전송기술과 수신장치를 개발하여 '95년 말에 예정인 무궁화위성사업에 활용한 방침이다.

또한 通信公社등 通信事業者의 연구개발투자는 '93년 2,991억원에서 '94년에는 4,079억원(매출액의 6% 수준으로 확대토록 하여 民間에 開發하기 어려운 大 型 및 基礎·基盤技術 개발을 강화하며 '97년까지 電 波使用料 등으로 1,333억원의 규모로 확대되는 情報 通信振興基金을 활용, 民間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지 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技術開發 協力體制를 강화하기 위해 海外尖端技術 의 도입과 産·研間의 共同研究을 확대하고, 國際特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기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산업계 지원을 강화하며 새로운 통신기술을 조기에 標準化하여 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通信技術協會가 중심으로 한 國際標準 化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 情報通信 技術人力을 養成을 지원하기 위 해 금년중에 전국 初·中·高校 12,000개교에 教育用컴 퓨터 보급을 30.3만대로 확대할 예정이며 主要大學에 國產主電算機 지원을 확대하고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實驗·實習資材와 獎學金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4. 超高速情報通信網 構築

전진전망은 未來 情報社會에서 고도정보통신망이 국가경쟁력의 核心基盤임을 인식하여 미국은 「Information Super Highway」 구축사업을 인방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유럽공동체 會員國을 연결하는 고속행정통신망 구축사업 착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超高速 情報通信網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며, 國家戰略事業으로 政府와 通信事業者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機關과 大學, 研究所, 主要企業등을 광개이망 網으로 연결하여 音響·데이터·影像 등 다양한 대량의 情報을 超高速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情報의 高 速道路를 1단계 ('94~'97)에서 주요 도시간 고속 (155Mbps) 광통신망을 구축하고 2단계('2002)에는

모든 이용기관을 光케이블網으로 연결하며 3단계(-2010)에는 초고속(10Gbps) 국가통신망을 완성토록 할 것이다.

초고속망의 구축을 통해 대용량의 情報交換技術, 光傳送 및 컴퓨터處理技術등 3세대의 核心情報通信技術을 확보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초고속공중통신망(B-ISDN)과 연결, 가정에서도 이용 가능케 할 방침이다.

앞년중에는 법국가적인 推進委員會와 運營專擔機構를 구성하고 서울과 대덕연구단지간 先導試驗網을 구축하여 高鮮明 影像情報등의 고속전송시스템을 이용한 원격진료 및 영상상의 시범사업 실시할 예정이다.

5. 無線通信의 活性化

無線通信의 品質을 改善하여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有限한 電波資源의 효율적 관리로 電波利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전화의 경우 통화불량지역 해소를 위하여 216개 中繼基地局과 通話施設(8,954회선)을 대폭 확장하고 종합 網管理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화품질을 향상하는 한편, 통화지역을 전국 主要 110개읍 지역까지 擴大하며 터널, 지하상가 등 通話不能地域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며 '94년내말까지 전국에 통화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無線呼出서비스(빠빠)는 전국 모든 읍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예약호출, 지정시간통보 등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電波資源 관리를 위하여 結合自動電波監視網을 구축하여 電波利用效率를 제고하고 電波資源을 적극개발하여 전파이용을 증대하고 산업을 지원하며 放送周波數의 효율적인 관리로 신규방송국 수요에 대처할 방침이다.

6. 通信産業 競爭力 強化를 위한 規制緩和

통신관련 法令 및 制度를 전면적으로 再檢討하여 通信産業의 競爭力 제고와 利用改善을 위한 규제완화를 단행할 계획이다.

우선 通信産業의 競争促進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정 및 허가조건을 완화하고 자가통신시설의 이용제도를 개선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登錄制를 申告制로 전환하며 전기통신공사업의 許可制度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通信利用者등을 위해 대형건물등의 區內交換施設 이용규제와 아마추어 무선기사 資格試驗을 폐지하고 許可 또는 申告없이 사용할 수 있는 無線局 범위와 專用回線 共同使用 범위불 대폭 확대하며 통신사업자의 利用約款을 이용자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그러나 人命保護와 安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서 연안 여객선등 선박통신용 무선국 정기검사와 電磁波障害 방지를 위한 형식검정등은 강화할 방침이다.

7. 國民의 通信利用便宜 增進

通信施設을 확충하여 國民의 利用便宜를 증대하고 料金制度 개선으로 利用負擔 輕減 및 經濟 活性化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

다양한 첨단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全國의 電話 交換機 完全 電子化하고 鑄貨·카드 겸용의 신형 공중전화기 보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오는 3월부터 컴퓨터通信網의 料金を 전화요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引下하여 PC통신이용을 활성화하고 移動通信 요금제도를 개선해서 無線呼出料金は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引下調整하고 移動電話料金は 경쟁도입과 연계하여 全面 檢討할 방침이다.

아울러 通信利用負擔 輕減시키기 위해 國家有功者에게도 無料電話를 보급토록 하고 零細民주택의 電話線路를 無料로 정비해 주며 私有地내 통신용전주를 無料로 移轉해 줄 방침이다.

Ⅳ. 맺음말

國際化, 開放化, 世界化로 표현되고 있는 오늘날의 냉담한 無限競争 시대를 맞아 國家競爭力의 強化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러한 때 情報通信 産業은 그 자체로도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면서 동시에 타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國家競爭力 강화에 매우 중요한 戰略分野이다.

이에 政府에서는 情報通信分野의 競争을 擴大하고 行政規制를 과감히 緩和하는 동시에 획기적인 情報通信 下部構造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학계, 연구계에서도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안목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産業界에서도 깨끗한 競争을 통하여 민간의 細流와

活力을 최대한 발휘하는등 학, 인, 산, 관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의 최대 과제인 國家競争
力 強化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박 성 득

- 생년월일 : 1939년 7월 20일생
- 1959년 4월 ~ 196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 1966년 3월 ~ 1969년 2월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 1970년 5월 : 제5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 1977년 7월 ~ 1978년 9월 : 강릉전신전화건설국장
- 1982년 1월 ~ 1984년 1월 : 체신부 통신정책국 통신
기술과장
- 1984년 1월 ~ 1987년 8월 : 중앙전파감시소장
- 1987년 8월 ~ 1990년 4월 :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 1990년 4월 ~ 1991년 11월 : 체신부 전파관리국장
- 1991년 11월 ~ 현재 : 체신부 통신정책실장